달마 for Windows 95
사찰 종무 관리 프로그램
사찰 전산화의 선두 기업 아란타 (02)3142-0108

현대불교

'98 자영경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7-0692/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12월 9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01 호

"불자들 피멍 누가 책임지나"

사설 두 차례의 승려대회를 보고

그것은 차라리 전쟁터였다. 화염병과 돌멩이를 던지고 각목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스님이 아니라 싸움판의 폭력배였다. 대낮부터 한밤중까지 치열한 전쟁을 치른 조계사는 신성한 부처님의 도량이 아니라 아수라장 바로 그것이었다. 최근 두 차례의 승려대회가 열린 뒤 조계종 총무원청사를 장악하기 위해 추악한 싸움을 벌인 조계사의 모습이다.

이번 싸움은 조계종 제 29대 총무원장 선거를 둘러싸고 촉발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스님들이 출가정신을 망각한 데서 일어난 것이다. 양측은 '종정스님의 교시'와 '절차상의 합법성'을 내세우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내막을 들여다 보면 모두가 출가정신에 투철하지 못한 데서 온 결과다.

현재 불교계에는 합리와 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힘있는 자가 싸워서 이기면 먹는 것'이라는 정글의 법칙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고서도 불교가 어떻게 중생을 향하여 탐진치 삼독을 끊고 화합과 자비를 실천하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양측은 제발 ㅇ 단계에서라도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만약 더 이상의 폭력사태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게 하는 행위다. '거룩한 삼보'를 스스로 능멸하고 자해하여 바라이죄를 범하게 된다. 그렇게 버릴 곳에서 불구대천의 원수가 만난 듯 양보없는 싸움을 계속 하면 국민들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양측은 온 천하가 불교계에 대해 손가락질을 하고 등을 돌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하루속히 사태를 마무리짓는 것이다.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자들은 모두 물러나기라도 해야 한다. 그런뒤 중립적 과도집행부를 세워 절차대로 총무원장 선거를 치른뒤 거기에 종권을 이양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고 시시비비를 논하다 보면 종단을 두 조각내고 공멸을 자초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조금만 자과논리에 합당하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파요, 해종분자로 몰아붙이지 말고 무엇이 해결의 길인지 생각해야 할 때다.

지금 불자들은 울고 있다. 삼보의 정재가 싸움돈으로 탕진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찢어 소금을 뿌린 듯이 아파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아직도 법리적 정당성 논쟁에 골몰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불자들이 입은 자존심의 상처는 상상보다 훨씬 크다. 선량한 불자들은 이번 일로 머리를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가 됐다. 일선 사찰들은 10년 포교의 성과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한숨을 짓고 있다. 불자들의 실망과 분노가 얼마나 컸으면 문제를 일으킨 스님들에 대해서는 합장과 공양을 거부하겠다는 결의까지 했겠는가. 부처님을 들먹이고 중생제도를 말하는 '스님'이라면 불자들의 이런 마음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불교는 싸움도 할 만큼 했다. 정화이후 30년이 넘게 했으면 신물이 날만도 한 시절이다. 이제는 종단분쟁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청정한 화합승가의 모습을 회복할 때도 됐다. 그러자면 '염불보다 잿밥에 마음이 있는 스님'들은 차라리 불교를 떠나야 한다. 그리고 싸움을 하더라도 재발 문걸어 잠그고 안에서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일체를 버리고 출가한 수행자들이 한 생각만 돌리면 될 일이다. 그리하여 더 이상 부처님을 욕되게 하지 말았으면 한다. 이것이 불자들의 마지막 소원이다. 이 소원을 왜 못 들어주는가.

종헌종법수호 승려대회

30일 사부대중 1천8백여명 동참
'연말 선거실시' 등 3개원칙 채택

종헌종법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대회장 탄성)가 11월 30일 오후2시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봉행됐다. 승려대회는 조계사와 정화회의측의 장소제공 불허 방침에 따라 조계사앞 우정국로에서 열렸다.

이날 승려대회에는 원로회의 의장 혜암스님과 지종, 월서, 이두, 도영, 성역, 성오스님 등 교구본사주지스님, 40여명의 종회의원을 비롯 1천2백여 스님과 신도 6백여명등 1천8백여 사부대중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종정 월하스님 불신임을 결의했으며 월탄, 현호 스님과 정화회의 부장급 성문, 현근, 정우, 원학, 현소, 법일 스님등도 중징계키로 결의했다. 또 11월 14일 구룡사 원로회의 원천무효, 전국 본말사의 불법단체에 대한 협조거부 및 현 집행부 총무지시 이행 등 7개항을 결의했다.

승려대회는 △원로의장 혜암스님을 위시한 원로회의와 중진대덕스님, 본사주지, 중앙종회, 권한대행체제가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한다 △금년 연말까지(12월 24일예정) 현 종헌종법을 근간으로 총무원장 선거를 실시한다 △현 종단사태와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법 제정 등 향후 종단사태 수습과 관련 3개항의 원칙도 채택했다.

이 대회에서 혜암스님은 "부끄러워서 법어를 못하겠습니다. 참회와 사과부터 하고 싶습니다"라고 목메인 소리로 외쳤다. 이날 대회는 대회사, 법어, 규탄연설, 결의문 채택, 발원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승려대회에 이어 참가자들은 총무원 청사를 반환받기 위해 조계사 경내로 진입했으며 이를 저지하는 정화회의측 스님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경내에 진입한 승려대회측 스님들과 정화회의측 스님들은 청사 진입과 저지의 공방을 10시간이 넘도록 벌여 조계사 경내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으며 3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조계사 대웅전과 덕왕전에서는 화재가 발생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관련기사 2면>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11월 30일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열린 전국승려대회 참가자들이 조계사 법당을 향해 삼귀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종단정상화
'자체 합의안' 모색
본사주지연합회

조계종 본사주지연합회(회장 법장)는 4일 서울 앰버서더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독자적인 수습안을 마련키로 결의했다.

본사주지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시비 당사자들의 일방적인 주장 수용 거부 △중앙종회, 정화개혁회의와 대화로 수습 방안 강구 △시비당사자들의 협조요청 거부 △합법적 절차 통해 정상적인 종단 출범 등 4개항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14명의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이 참석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6일 양측 대규모 집회

정화회의-방화 규탄, 범불교도회-공권력 규탄

6일 오후2시 광화문 네거리와 조계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조계종 총무원과 중앙종회는 '종헌종법 수호와 공권력 규탄 범불교도대회'를 6일 오후 2시 광화문 일대에서 갖는다. 이를 위해 총무원과 종회는 봉행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대회장은 전국승려대회장을 맡았던 탄성스님이 맡기로 했다. 봉행위는 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범불교도대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봉행위는 "이날 대회에 1만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원될 것"이라며 "폭력 현장을 지켜보면서도 방관한 공권력과 그 책임자의 처벌등을 촉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봉행위측은 조계사까지 가두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정화개혁회의는 조계사 대웅전에서 12월 1일 새벽 발생한 화재가 승려대회측의 고의적인 방화로 규정하고 6일 오후2시 대규모 규탄대회를 갖는다. 정화회의측은 "정화개혁회의의원, 조계사등 주요사찰 주지, 강원학인, 신도등이 참석해 승려대회봉행위의 방화행위를 규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

선방은 살아있다 5면
국난극복 참회대법회 회향 14면
신행수기 공모 15일 마감합니다

출소자의 친구

"아줌마는 시원스런 얼굴이 탤런트 김혜수 닮았어요" "아저씨는 덩치가 듬직하게 좋은데 무슨 운동하시나 봐요."

11월23일 오후7시 서울 양천구에 자리한 한국갱생보호공단 서울지부. 마포구 신정동에서 '옹기종기'란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는 이은풍(52) 보살이 교도소에서 막 출소한 사람의 머리를 손질해주며 농담을 주고받고 있다.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그녀가 이곳 갱생보호소를 찾기 시작한 것은 지난 5월부터. 매달 네 번째 월요일 오후 7~9시 미용봉사를 나와 매번 60여명의 수용자 중 20여명의 머리를 신세대식으로 꾸며 준다. 하지만 그녀의 주목적은 미용봉사 보다는 출소후 5~6개월간 이곳에서 머물며 사회적응 기간을 갖고 있는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여미는 작업.

"처음에는 그들의 눈빛이 매서워 주눅이 들었어요. 그러다 차츰 마음의 문을 열다보니 이웃에 사는 아저씨나 총각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보통사람이더군요."

이곳에서 유일하게 자원봉사를 하게 된 것도 순전히 이 보살의 억척(?) 때문. 자원봉사라면 언제 어디든 발벗고 나서는 그녀가 새로운 봉사활동 장소를 찾다 우연히 전화를 하게 된 것.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한 아들 둘이 모두 실직자가 되어 경제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녀는 "세상살이의 시름을 자원봉사를 통해 잊는다"고 말한다.

지난 9월에는 부천의 도시가스 폭발 현장에 자원봉사를 나갔다 돌아오는 길에 경인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당해 6주동안 병원에 입원하는 신세가 되었다. 하지만 한 달에 한번 오는 누님(?)을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해 아들 이현우(29)씨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몰래 빠져나와 봉사활동을 다녀오기도 했다.

새벽 알찍 노동 일을 하다 들어 온 갱생보호소 식구들도 이 보살의 이런 모습을 보고 더욱 용기를 얻는다. '세상에는 아직도 자신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혼돈의 시대, 김윤보 큰스님이 던지는 연꽃 에세이

시련의 바로 위가 극락이라네

인생은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오늘 내가 괴로움과 시련으로 희망을 버린다면 사람이기를 저버리는 것이다.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만났기 때문에 헤어지듯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시련과 고통이 있는 것이다. 괴로운 사람들아! 시련의 바로 위가 극락임을 명심하자. '아뇩다라 삼먁 삼보리'

"스님, 어떻게 하면 그 빚을 빨리 갚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지요. 오늘부터 당신이 아들이 되고 아들을 부모라고 생각하고 효도를 한번 해보면 전생에 당신이 아들에게 진 빚을 갚을지 않니까?"
"예, 스님. 저 아이만 좋아진다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하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자식으로 인해 한이 맺혔으면 자식에게 자식 노릇을 하면서 효도까지 하겠다고 할까? 참 생각할수록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방법을 찾았다.
- 자식에게 효도하는 부모가 편하다 중에서

김윤보 (자옥산 대흥사 조실 · 열불종 종정)/신국판 336쪽/값 8,000원

연속 중판 돌입

호현출판 TEL 758-0262 FAX 779-0263